

## “5·18 진압군 ‘버스 총격’ 효천역 인근서도 있었다”

평화봉사단 활동 폴 코트라이트 광주일보에 목격 증언

1980년 5월 21일 오후 도로에 버스 3대 널브러져  
버스에 총탄 자국 무수히 많았고 내부에는 핏자국

5·18민중항쟁 당시 광주시 남구 효천역 인근에서 민간 버스에 대한 사격이 있었다는 외국인 목격자의 첫 증언이 나왔다. 이 목격자는 1980년 5월 21일 오후 남평-광주 간 도로 차단 지점에서 광주 방향쪽으로 이동을 하다 도로에 총탄자국이 무수한 버스 3대가 지그재그 모양으로 멈춰선 광경을 봤다. 내부에는 핏자국이 있었고 시신은 보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3면>

5·18민중항쟁 당시 광주-전남에서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s) 소속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폴 코트라이트(63·Paul Courtright)씨는 지난 12일 광주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광주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1980년 나주시 남평 호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5월 21일 자전거를 타고 광주에 왔다가 끔찍한 참상을 목격했다”며 “군용차량과 민간차량으로 도로를 막은 차단지점을 통과해 효천역 인근까지 왔는데 버스 3대가 널브러져 있었고 걸면에는 수많은 총탄 흔적이 보였다”고 증언했다. 이어 “버스 안에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핏자국을 봤다”며 “광주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기 때문에 매우 겁이 났고, 그때 본 모습은 평생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폴씨는 또, 지금의 효천역 인근에서 민간 버스가 옆으로 넘어져 눈에 빠져 있는 모습과 차단 지점 2곳 등을 직접 찍은 사진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폴씨는 원본 필름을 분석했고, 사진 촬영 날짜는 5월 21일로 추정했다.

버스를 찍은 사진은 광주시민 3명이 넘어진 버스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으로, 사진 속 버스는 왼편으로 누워 있고 오른쪽 헤드램프 위에는 붉은 글씨로 ‘계엄’이라고 적혀 있다. 앞 유리창과 번호판은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사진촬영 장소는 사진 배경과 폴씨가 당시 연탄을 싣은 수레를 많이 봤다고 기억한 점으로 미뤄 남산연탄공장이 있는 지금의 효천역 광주-나주간 도로 인근 송암공단 사거리로 추정된다. 차단 지점 사진은 진압군이 파손된 군용트럭과 민간 승용차, 택시를 이용해 임시로 설치해놓은 차단시설의 모습이 담겨있다. 폴씨는 다만 총격

을 당한 버스 사진은 두려움과 군인 감시 때문에 찍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항쟁 기간 폴씨는 5월 23일 남평 호혜원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진압군의 제지에 막혀 5월 25일까지 광주에 머물렀다. 미국 정부의 철수 명령에도 그는 팀 완버그·데이비드 돌린저·주디 채임벌린 등 다른 평화봉사단 동료 3명과 함께 외신기자 통역, 상무관 시신 수습 등을 도왔다.

폴씨를 포함한 평화봉사단원들은 언론에서 접한 광주 상황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느꼈고 광주를 빠져나가 직접 사실을 밝히기로 결정했다. 폴씨는 “우리들은 데이비드 밀러 당시 광주 미국문화원장이 미국대사관에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며 “회의 끝에 지리에 밝은 내가 광주를 빠져나가기로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폴씨는 25일 송암동 인근 산길을 5~6시간 걸어 광주를 벗어난 뒤 택시를 타고 전주로 가 고속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향했다.

폴씨는 다음 날 미국 대사관을 찾아 2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는 지금까지도 “당시 미국 정부가 5·18을 이미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국민 자신들의 이야기까지도 묵살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헬기사격에 대한 질문에는 “사실이라고 확신한다”고 답변했다. 폴씨는 “상무관에서 활동하며 손자를 잃은 할머니로부터 헬기에서 총을 쏘는 소리를 들었다”며 “이 할머니 뿐 아니라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여러 광주시민들에게 헬기사격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5·18연구자들은 폴씨의 증언에 대해 충분한 신빙성을 부여하며 효천역 인근 버스 사격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5·18재단은 오는 18일 폴씨를 초청해 증언을 청취할 계획이다.

폴씨의 인터뷰 통역과 자문을 맡은 이재의 5·18기념재단 비상임 연구원은 “39년 전 기억이지만 폴씨의 이야기는 5·18 일자별 상황과 비교하면 대부분 일치한다”며 “그동안 주남마을 민간버스 학살만 알려진 상황에서 효천역 인근에서도 버스 학살이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넘어진 버스에 ‘계엄’ 붉은 글씨 1980년 5월 21일 당시 광주시 남구 송암동 효천역 인근 남평-광주간 국도변에 시민군 민간버스가 넘어져 있다. 사진을 찍은 폴 코트라이트씨는 해당 버스 이외에도 총격을 당하고 핏자국이 있는 버스 3대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폴 코트라이트씨 제공>

## “광주 온 전두환, 도청앞 발포 전 사살명령”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505 보안부대 허장한씨 국회서 증언

“암매장 사체 광주 국군통합병원으로 옮겨 소각처리”

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상당수의 사망자가 광주 국군통합병원에서 소각처리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80년 5월 당시 주한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와 505 보안부대 특명부장을 지낸 허장한씨는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광주 국군통합병원에서 민간인 사망자들을 소각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6면>

허씨는 “당시 계엄군에서 시민 희생자가 매장 위치, 좌표를 표시해 보고 했으며 간첩 등 제5열을 점거하기 위해 보안부대에서 일일이 희생자들의 지문을 채취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이어 “지문 채취가 끝난 사체들은 대부분 국군통합병원에서 소각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구가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당시 소각 처리와 관련, 국군통합병원

장 등이 훈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그 때 소각한 유골은 광주시 청소부들을 동원해 모처에 매장하고, 보안 유지를 위해 급부도 저회(보안사)가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송암동에서 발생한 11공수여단과 전투교육사보병학교 교도대 간의 ‘쌍방교전사건’과 관련, 당시 보안사 이학봉 대공처장에게 단순 소인사격이라고 보고하자 이 처장이 “00비행단에 연락해 출격 취소시키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80년 당시 광주에서 활동했던 편의대(시민으로 가장한 계엄군)와 관련, 김씨는 “시민 행세를 하던 사복 군인들이 실제로 존재했다. 제가 첩보를 입수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며 “이들은 성남에서 C130 수송기를 타고 왔고 K57 비행장 격납고에서 2~3일 주둔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나이는 20~30대 젊은이들로 30~40명 규모였으며 짧은 머리에 일부는 가발을 썼다. 얼굴은 새까맣게 그늘려 있었고 거지처럼 냄새를 맡는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1980년 5월 21

일) 직전 광주를 방문해 시민군에 대한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씨는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 K57(제1전투비행단) 비행장에 와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대장 등과 회의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사살명령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회의에서 사살명령이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 제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화순에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들어선다

국가 백신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부지로 화순이 최종 결정됐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화순을 중심으로 첨단 의약산업 허브를 만들겠다는 민선 7기 구상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를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설립하기로 하고 주관 사업자로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를 선정했다.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213억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중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최고의 입지! 최고의 가치!

## 대성베르힐로 완성하다

첨단 2지구 대성베르힐

<b>First Prestige</b> 첨단 2지구 첫 오피스텔 최초특권	<b>Best Infra</b> 첨단에서 누리는 <b>신상무지구 생활인프라</b>	<b>Great Traffic</b> 사통팔달 빠르고 편리한 <b>교통인프라</b>	<b>Wide View</b> 탁트인 개방감의 <b>명품전망 (인근사계)</b>	<b>Mordern Space</b> 최소 49㎡의 <b>유일한 특권</b>	<b>Trendy Plan</b> 최신 트렌드 설계 <b>2베이 2룸</b>	<b>Tomorrow Vision</b> 인근 신단 <b>6만 9천여명 배후수요</b>
---	--	---	---	---	---	---

**5월 OPEN**

첨단2지구 첫 오피스텔	실속명품 49㎡
지하철 2호선 개통예정	상무지구 10분거리
중도금 전액 무이자	즉시 전매 가능

오피스텔 49㎡ 총 559실

# 225.1234

시명 뉴스타 / 디에스종합건설(주)  
시명 디에스종합건설(주)  
분양 주석회사 대문디앤씨